

[박현근 수능국어 칼럼 1: 겨울방학 국어학습 가이드]

현재 시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많은 경우 기출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 기출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국어 전체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Part 1. 분석 방식

<p>[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간 제한 풀이② 시간 무제한 분석③ 채점 및 교정 <p>[이유]</p> <p>풀 때 시간 제한해서 풀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 시간 무제한으로 천천히 푸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시간을 재지 않고 풀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꿈나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풀이와 연습할 때 풀이가 달라져서 점수 사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분석을 하고, 채점을 하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채점을 하고 교정을 하면 '아 순간의 실수로 잠깐 잘못 골랐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골라야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번에 풀 때 똑같이 골라 틀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p> <p>분석을 시간 무제한으로 하고, 채점을 하면 답에 맞춰서 생각을 끼워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무제한으로 분석을 하고도 틀린 문제는 내가 절대 맞출 수 없었던 문제인 것입니다.</p>

Part 1-1. 시간 제한

<p>[시간 측정 가이드 라인]</p> <p># 영역</p> <p>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17문제 - 25분15문제 - 23분독서: 지문당 8~13분 <p># 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가 단독: 4~5분소설 단독: 6~8분복합: 8분

Part 1-2. 시간 무제한 분석

[요약]

- ① 이해 어려운 부분 계속 읽어보기
- ② 답 바꾸기
- ③ 지문과 선지에 각각 근거 표시
- ④ 배운 내용 적용

cf. ① ~ ④의 내용은 순서가 아닌,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나열입니다.

[이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국어를 접근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얻는 깨달음은 정답지나 해설지 깨작거리면서 읽어보는 것과 다른 감동을 제공합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답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주세요. 꼭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바꿨을 때 더 많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지문과 선지에 각각 근거를 표시하는 것은 지문과 선지를 붙여 읽기 위함입니다. 느낌이나 감에서 벗어나서 '근거' 중심으로 풀기 위한 기본 훈련입니다.

인터넷 강의 / 학원 수업 / 과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풀 때도 해야 하지만, 풀고 나서 분석할 때는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에 빙의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Part 1-3. 해설

내가 찾은 근거가 맞는지, 헛갈렸던 선지나 지문의 내용은 반드시 해설을 참고해야 합니다.

Part 2. 분석의 느낌

A. 지문

① 문장

문장의 어떤 요소가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독해는 글을 읽는 것의 기본입니다.

[예시]

- a. 하지만, 그러나: 앞과 뒤 다른 내용
- b. ~데: 앞부분의 정보를 쌓고, 뒷부분은 앞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 c. 다만: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연결

반복되는 중요한 요소는 항상 연결됩니다.

같은 내용이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내용 요소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화살표로 연결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정리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용어로 바꾸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④ 흐름

독서와 문학 모두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

정리된 요소를 토대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흐름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B. 문제

① 문제는 어디를 묻는가?

문제는 지문의 어느 지점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선지에서 지문을 연결해 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연결되지 않는 정보, 근거 없는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로, 독서의 추론 문제에서 묻는 부분,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추론 문제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지문을 살펴보면 지문의 주제가 더 잘 보입니다.

② 틀린 선지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가?

틀린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법을 알아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틀린 선지를 의심하기 더 쉽습니다. 따라서 독서나 문학 모두 틀린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t 3. 문학 발전

[서론]

내신 문학 VS 수능 문학

내신 문학: 내신은 아는 작품, 수업에서 배운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질문합니다.

수능 문학: 수능은 모르는 작품, 낯선 작품에 대해 감상할 수 있는 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론]

따라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문학 작품 전반을 감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키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목표: 어떤 문학 작품이 와도, 나의 틀로 문학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적용]

현대시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어의 세세한 의미를 모두 고민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시에서 강조하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큰 틀에서만 파악하고, 주제에 대해 잡아낼 수 있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해가 안되는 시어에 대해 무작정 멈추고,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상징을 동원해서 푸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면 바르지 않은 현대시 독해입니다.

좋은 시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작가의 상황을 고려해서만,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떠올려야만 해석할 수 있는 시가 아닙니다. 좋은 시는 시 자체의 문장과 시어를 읽어나가면서 시 안에서 만든 세계, 시 안의 글자들이 만든 글자들이 연결되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학교 과정에 나오는 시는 검증된 좋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시에 대해 작품 자체의 정보가 아닌 바깥의 정보를 끌고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현대시에 대해, 나의 틀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의 언어 안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잡아내기

Part 4. 독서 발전

독서: 태도 제작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해서 풀기만 하면 내신으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푸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독서 지문을 풀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

- ① 글에 대한 주제 찾아내기
- ② 문제화되는 정보 찾아내기
- ③ 글의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 잡아내기

위의 고민에 대한 답안/해결방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t 5. 그래서 학습은? [for 겨울방학]

Part 5-1. 무엇을?

[문학]

2017 문학 ~ 2023 문학 순서대로 매일 [15문제 혹은 17문제]

2014~ 문학 ~ 2016 문학 [A형 혹은 B형 정해서 하나로 쪽 밀고 가고, 나머지를 n제처럼 활용]

옛기출

[독서]

수준 상: 2023학년도 기출문제부터 매일 2~3지문씩

수준 중: 2017학년도 기출문제 ~2023학년도 기출문제 풀고, 옛기출 풀기

수준 하: 2012학년도 기출문제~최신 기출문제

[병행할 공부]

고전시가 기초 작품

고전 필수 단어

교육청 고전

[언매라면 언매 개념]

Part 5-2. 어떻게?

무조건 지문은 몽쳐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시: 공부 시작 8시]

8 - 8:30 문학 묶어서 문제 풀기 [4지문]

8:30 - 9:20 문학 지문 분석 및 오답 정리

휴식, 숨고르기, 잠시 자기

9:35-10:00 고전 단어 암기 및 언매 개념 복습

10:00-10:25 독서 문제 풀이 [1~2지문]

10:25-11:10 독서 분석 및 오답 정리

11:10-11:30 언매 학습 및 복습

칼럼 [주제 예고]

1. 수능 잡기술

2. 현대시

접근법 / 풀이

3. 고전소설

접근법 / 풀이

4. 현대소설 접근법

접근법 / 풀이

5. 고전시가 접근법

접근법 / 풀이

6. 복합에 대한 현명한 대처

접근법 / 풀이

7. 독서 지문 독해 방식

접근법 / 풀이

8. 문법이 암기인가?

접근법 / 풀이

9. EBS 및 사설 활용 가이드